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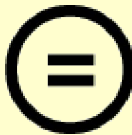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전 홍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김 효 빈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전 홍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김 효 빈

인 준 서

김효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유치원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에게 효과적인 사진촬영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과정에서 교사는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서울, 대전, 충남에 거주하는 만 3세~만 5세 유아의 담임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개별면담을 교사당 2~3회씩 실시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동료연구자 2인의 조언과 검증 등을 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유아가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유하였고 사진이 부모에게 유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환경을 구성하거나 수업자료나 교구를 제작할 때,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나, 유아를 평가할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이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매체인 동시에 사건을 기록하는데 정확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진은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가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장면을 만들어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수업보다 사진촬영에 치중하게 되었고, 너무 많은 양의 사진으로 인해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사가 사진촬영과 수업활동을 동시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카메라 기계의 오류로 인해 저장해두었던 사진들이 모두 사라지는 일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촬영과 활용이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카메라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인식하여 유치원에서 사진촬영과 활용의 효과적인 사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사와 유아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 관련된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진촬영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사진의 개념 및 특성	6
2. 사진의 교육적 기능	11
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진의 활용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참여자	20
2. 연구절차	21
1) 예비연구	21
2) 본 연구	22
3. 자료 분석	25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26
IV. 결과 및 해석	27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27
1) 유아에 관한 정보전달에 활용	27

2) 환경구성에 활용	32
3) 교수자료에 활용	36
4) 교사의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에 활용	43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어려움	48
1) 과도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어려움	48
2) 사진작업이 과중한 업무로 변질되면서 겪는 어려움	54
3) 사진 관리의 어려움	59
4)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한 지원체제에서 겪는 어려움	61
V. 논의 및 결론	64
1. 논의	64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64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어려움	69
2. 결론 및 제언	7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20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21세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신기술이 생겨나면서 이전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기록매체가 생기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고 쉽게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특별한 사건이나 기록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건과 사물 및 장면을 사진 속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장창식, 2015).

사진은 언어적 기능과 발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수영, 2012). 언어적 기능이란 사물을 본 뒤 그 느낌을 말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배연희, 2010). 사물을 보고 느낀 점을 말로 똑같이 표현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며 자신이 보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말로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다. 그에 비해 사진은 다른 표현방식에 비해서 현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쉽고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진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장화심, 유성호, 2006) 언어에 비해 직접적으로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줄 수 있어서 타인과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권순황, 2006). 이처럼 사진은 사실성과 전달성을 바탕으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김창수, 2009), 사진을 통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진의 활용은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발견적 기능이란 사물을 대상으로 삼아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떼어낸 현실의 모습이며 사진가가 만들어낸 현실이 아니라 현실 사물을 그대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김지영, 2011). 그래서 사진은 주관적인 표현이나 창조라기보다는 발견 내지 인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한정식, 2003). 따라서 현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이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 혹은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모습들을 포착해내게 된다. 사진은 이처럼 사람의 시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선경, 2006).

사진은 현실을 거의 완전하게 복사해주어서 사진이 지시하는 대상물 및 사진이 보여주는 내용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표현해주는 강력한 현실 재현력으로 일상 경험 이상으로 정확하고 생생한 느낌을 제공한다(김정미, 2008).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물의 종류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것 중 하나는 사진이며 이러한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에게도 전달의 효과가 탁월한 교수매체이다(이철규, 2003). 이와 같은 사진의 언어적 기능과 발견적 기능은 사진이 교육적인 용도로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연희, 2010).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사진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사진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공주희, 2012; 민순옥, 2011), 사진을 활용한 활동에서 유아들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배연희, 2010; 이진희, 2014; 장창식, 2015), 유아활동에 사진을 접목하여 활동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김성애, 2012; 김승미, 2014; 문인경, 2013; 문정은, 2014; 박미정, 2009)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주희(2012)는 사진을 활용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에게 적용하였을 때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은 사진을 활용한 활동에서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며 회상하고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에게 사진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선행연구들은 언어능력향상(양진희, 2014; 이수영, 2012; 이승혜, 2006), 창의성 향상(김소향, 2011; 문정은, 2014), 정서지능의 긍정적인 영향(김경철, 박미정, 2009), 사고력 증진(김승미, 2014; 문인경, 2013; 민순옥, 2011), 사회적 기술 증진(박경화, 2014; 이모아, 2013), 예술적 표현 증진(정현주, 2002), 환경인식 증진(김성애, 2012; 김정미, 2008; 류혜숙, 장정애, 김정주, 조형숙, 2008; 박미정, 2009; 이은우, 2014) 등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활동에서 사진의 활용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진 찍기를 통한 표상활동은 유아의 공간 능력 및 도형 인식 능력 향상에 효과(김승미, 2014; 문인경, 20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사진을 활용한 산책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배연희, 2010), 카메라를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 언어표현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양진희, 2014; 이승혜, 2006).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진을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하였을 때 유아에게 창의력향상, 언어능력 향상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발달적인 측면의 사진 효과 및 유용성을 살펴보는 데에 교재 또는 보조매체로 활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진촬영과 활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메라의 기술 발달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카메라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태를 감안해 본다면 교사의 사진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진 활용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김은희, 황연옥(2008)의 연구결과 교사는 사진을 학습을 자극시켜주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에게 적극적인 언어자극을 위해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주(2014)는 사진을 활용한 교사의 기록화가 단순히 유아들의 학습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즉, 사진은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관한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진의 교육적인 효과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왔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교사들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을 활용하여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육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은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과정에서 교사는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진의 개념 및 특성

1839년 영국의 John Herschel이 ‘빛’과 ‘그린다’라는 그리스 어의 포스(phos)와 그라포스(graphos)에서의 합성어로 사진(photography)을 처음 사용한 이후 공통적으로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정한조, 1997).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의 개념을 베낄 사(寫), 참 진(眞)으로 ‘진실을 베끼는 것’을 말하며 실물과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사(寫)적인 측면과 내면의 정신도 나타내야 한다는 진(眞)의 측면을 강조한 동양 회화 정신의 전신(傳神)철학이 담겨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사진의 정의로는 첫째, 카메라를 사용해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표현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으로 동굴벽화나 회화와는 달리 인류가 발명한 영상기술을 의미하며(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물건의 모양을 그려내고 감광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진기로 물체의 형상을 박아 낸 것이다(김홍식, 2002). 사진은 카메라의 기계적 과정과 필름 및 인화지에 화학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화지에 직접 볼 수 있는 사물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배은미, 2008).

둘째, 사진은 한 대상의 형태를 직접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현해주는 다차원적인 영상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카메라의 기술로 인해 특별한 사건이나 기록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장창식, 2015). 사진은 사진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말 이상의 것이며 보편적인 의미의 메시지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진은 보편적이고 독립적이며 기호체계의 일종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나 메시지 그 자체이다(김철권, 1999). 즉,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적 기록이 아닌 하나의 영상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박영철, 1993). 사진은 이미지를 시각적인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을 다양한 시각적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다(이수영, 2012). 이전보다 매체가 발달하면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완하고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진의 특성에 대해 조금씩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진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의 특성을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으로 구분한 김혜영(2008)은 내적 특성은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같이 사진 속에 있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외적 특성은 기계에 의한 기능적인 사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정식(1986)은 내적 특성에는 현실성, 우연성, 고립성이 있으며, 외적 특성으로는 사진의 영상과정에서 생기는 사진의 작용원리나 구조의 특성으로 복사성, 자동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사진의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진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반면 사진의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서로 분리하여 구분하기 보다는 각 특성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 이승미(2008)와 배연희(2010)는 사진의 특성을 기록성, 고립성, 사실성, 발견성으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된 사진의 특성은 기록성, 사실성, 고립성, 전달성, 우연성, 복사성, 자동성, 형상성, 현실성, 언어성 그리고 발견성이 있다. 먼저, 사진의 기록성은 사건이나 사물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며(한정식, 1986) 순간적인 기억을 회상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진을 통하여 경험의 재방문과 재발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승미, 2008). 또한 사진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자동적

으로 기록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찍은 사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한정식, 1986).

둘째, 사진의 사실성은 현실 그대로를 찍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진가가 그 현장에서 현실을 거의 똑같이 복사해주는 현실 재현력으로 인해 현실을 그대로 옮겨 주어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느낌을 제공한다(이승미, 2008; 장화심, 유성호, 2006). 사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정확히 담을 수 있고, 넓게는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상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최연철, 2005). 그림이 나타낼 수 있는 사실적 표현력은 개인적 주관에 포함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진은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기에 그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사진의 고립성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부분만 포착하여 정지된 화면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김혜영, 2008). 사진은 물리적으로 선택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한 순간이 잡힐 뿐이며 연속된 시간과 연결된 공간이 전체적으로 찍히지는 않는다(장화심, 유성호, 2006). 이러한 사진의 고립성은 유동적인 이미지보다 기억하기 쉽고 고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사진의 전달성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현상을 시각적 언어로 정확하고 뚜렷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김창수, 2009). 사진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기에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기능을 한다(김창수, 2009; 배연희, 2010). 이는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느끼거나 감정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유아들에게도 유용한 의사소통의 매개물이 될 수 있다(이정원, 2007). 사진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전반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사진의 우연성은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것으로 사람이 지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우연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백주현, 2009). 사진은 우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모습이 배출 될 수 있고 사진사와 대상의 의적 조건이 일치되는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된다(한정식, 1986). 사진은 현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이었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움직임이나 순간을 포착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사진의 복사성은 현상과 현실을 거의 그대로 복사 및 재현시켜 줌으로써 사진 영상이 현실적 사물과 사실에 일치하여 그 장면을 여러 장 복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성은, 2013; 한정식, 1986). 최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신속 정확한 복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촬영된 이미지는 디지털프로그램화 시켜서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이기에 수시로 원본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황연주, 2002). 사진의 복사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교수자료를 연구해볼 수 있고, 여러 유아들에게 질적으로 같은 사진을 활용하여 동일한 교육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사진의 자동성은 카메라의 셔터만 가볍게 누르면 자동으로 쉽게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이진희, 2014). 신속하고 정밀한 복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사물로서 신뢰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사성과 자동성은 인권문제와 같은 불법복제 및 초상권 침해가 생기고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편리한 매체로 접근하기 쉽고 편집하는데 다른 매체보다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문정은, 2014). 자동성에는 사진술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관적 개입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

해주기도 한다.

여덟째, 사진의 형상성은 사실적인 형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구체적인 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피사체를 눈으로 보았던 그대로 사진 속에 담아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현실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박경화, 2014). 이러한 사진의 형상성은 사실성과 복사성의 특징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있는 형상들에 대해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기록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홉째, 사진의 현실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 찍히게 되어 순간의 기억을 그대로 기록하여 회상시켜주는 기록성과 단순히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었다는 현장성이 포함된다(배은미, 2008). 그림이나 회화와 달리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그 현장에 무조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것만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기에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열 번째, 사진의 언어성은 언어에 비해 사진은 현장과 현실을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넘치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을 가진다(이정원, 2007). 미국의 유명작가이자 이론가인 Feininger (1981)는 사진은 상형언어 중 가장 완벽한 언어라고 하였던 것처럼 예술영역에서 무엇인가 표현하고 나타내어 전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한정식, 1998 재인용).

열한 번째, 사진의 발견성은 무심코 지나쳤던 의미나 장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진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냄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보고 알고 있는 것, 익숙한 풍경이지만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 또는 간과하기 쉬운 모습을 포착하여 발견하는 것이다(배연희, 2010). 이는 사진의 고립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며, 사진의 우연성까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은 학습자의 경험을 넓히며 흥미를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매체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사진은 유아들의 학습발달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매체가 될 수 있다(김경철, 박현진, 2005; 문정은, 2014).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의 특성을 인지하여 교육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사진의 교육적 기능

사진을 찍기 위해 필름카메라를 활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매체의 보편화로 인해 즉각적이고 손쉽게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최연철, 2005). 과거에는 필름카메라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멀티미디어가 대중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사진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매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사진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다방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공주희, 2012). 이러한 대중화로 인해 사진은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언어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진은 주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실물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유아교육에서 더 효과적인 매체이기도 하다(문인경, 2013).

1900년 초반 예일대학교의 아동발달 연구 소장이었던 Gesell은 여러 해 동안 일정 시간 유아를 사진 촬영하여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진을 활용한 연구가 교

육 분야에서 학문적 전통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지는 못했다(최연철, 2005). 1991년 미국의 듀크대학 다큐멘터리연구소가 워디이월드와 사진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고 개발한 PIE(Photo in Education)은 사진 활용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관련된 글을 쓰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문정, 양종훈, 정영근, 2010). 또한 Eisner(1997)은 교육연구에 시각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필름, 만화,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에 사진도 포함시켰다(김경철, 박현진, 2005 재인용).

사진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단순히 기념 촬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보다 한층 발전되어 유아들을 위한 훌륭한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수영, 2012). 선행연구들은 사진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김경철, 박현진, 2005; 노연숙, 현혜연, 하동환, 2007; 문인경, 2013; 문정은, 2014; 박경화, 2014; 박미정, 2009; 이경률, 공주희, 2010; 이모아, 2013; 이수영, 2012; 이운원, 2007; 이진희, 2014; 장착식, 2015; 최연철, 2005). 사진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는 김경철, 박현진(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진의 교육적 목적을 바탕으로 평가용, 연구용, 학습용, 그리고 전시용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은 유아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진을 바탕으로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portfolio)평가가 있다(Elkind, 1989). 교사는 사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반성적 과정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진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까지도 자기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최연철, 2009). 또한 사진은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할 때 효과적인 상담의 도구가 된다. 사진을 토대로 교사는 학부모와 상담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와 학습 정도

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담으로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교육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사진은 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최연철, 신설아, 2013). 김경철(2000)은 유아의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유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은 교사의 유아평가, 학부모의 면담뿐만 아니라 교사와 유아의 자기 평가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진은 유아의 작품이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각적 자료로 사용되는 사진,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연구대상자인 유아들이 촬영한 사진, 현장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교육사진은 교육연구와 같이 질적 연구의 자료, 관찰과 면접, 레포 형성의 수단, 유아의 내러티브 탐구 등으로 사용된다. 사진은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주관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서 귀납적으로 분석되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의 매개체로서 활용된다(Bogdan & Biklen, 2007).

최연철(2005)은 사진이 질적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삼각화기법의 일환으로 사용되거나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보충하고 양적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진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활용하거나 주요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때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유아로부터 풍부한 이야기와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활자가 읽는 문화이고 이미지는 보는 문화였으나 영상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둘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김지영, 2011). 특히 교사와 유아 등의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사진사의 역할을 이행할 경우 그 사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최연철, 2005). 왜냐하면 유아는 본인의 경험과 특정 상황 및 사건을 사진으로 담고 재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롭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진은 유아의 작품이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습용 사진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진들이 포함되며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로 이용되고 기록 작업에도 활용된다. 교사나 유아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적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교육 자료의 보조적 기능에서 사진의 활용범위가 넓어졌다(김문정 외, 2010). 또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컴퓨터나 교육기자재와 호환이 용이하여 사진을 빠르게 전달하여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

과거에 사진은 전통적인 교수매체로서 시각적 자료와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작업의 보조도구로만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학습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수매체로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진은 주변 환경과 세상을 인지하게 해주며 보다 여러 방면의 이미지와 교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를 준다. 또한 사진 작품 감상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능력을 신장시켜 효과적인 예술 체험과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가진 미디어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이경률, 공주희, 2010). 유아들은 디지털 매체인 디지털 카메라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주변사물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어 동기 유발에 용이하고,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유용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유아의 작품이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아들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 활동과정 기록 사진, 유아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이 전시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편집, 선별, 패널 등의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전시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기록을 전시한다는 것은 기록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활용됨을 의미한다(이은숙, 2001). 기록물을 전시하는 활동에서 기록자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고 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문인경, 2013).

배연희(2010)는 교사가 찍은 사진의 활용과 유아가 찍은 사진의 활용으로 사진의 교육적 활용을 구분하였다. 교사에 의한 사진의 활용에서 교사는 찍은 사진을 통해 하루의 일과 또는 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발견하고, 반성하고, 다시 배우고, 그리고 다시 구성할 계획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서 중요한 점, 간과했던 점, 보완할 점 등 여러 가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는 사진 감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을 얻을 수 있고 놓치기 쉬운 장면이나 상황이 사진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교사가 간과했던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유아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박미정, 2009). 사진을 통해 얻은 누적된 기록으로 유아들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앨범으로 제작하는 것 외에 평가 자료로서 그리고 유아의 수행 활동을 기록하는 매체로서 훌륭한 도구가 된다(이경률, 2008). 이를 통해 교사는 유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다양한 시각으로 유아들의 학습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때로는 배경이 학습과정을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유아 중심으로 유아의 표정을 담는 것이 학습과정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민순옥, 2011). 또한 교사는 학부모와 상담 시 유아들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을 토대로 상담함으로써 학부모는 유아들의 학습 상태와 발달에 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더 잘 이해하여 교육의 동반자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은 교육 분야에서 평가, 연구, 학습 그리고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사진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의 활용

사진의 교육적 가치를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사진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유아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이거나 유아의 일상 모습 및 생활의 모습이 포함된 일상생활 사진을 활용한 연구(김승미, 2014; 문인경, 2013; 배연희, 2010; 서혜정, 2013; 양진희, 2014; 이모아, 2013; 이승혜, 2006; 최연철, 2009; 최연철, 신설아, 정아림, 2010)에서 사진은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할 때 유아들은 더욱 풍성하게 이야기를 꾸며보고 상상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DeMarie & Ethridge, 2006). 유아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기에 유아중심에서 사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유아의 관점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해 활용하게 되면 교사나 유아가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최연철, 2005).

유아교육에서 유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일상사진을 활용한 교육적 활동이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진주(2015)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통한 기록화 과정에서 유아들은 기록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친구와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사진을 활용한 유아중심의 교육 방법은 유아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인경(2013)의 연구에서는 사진 찍기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쌓기 놀이를 평가해봄으로써 평면 도형 및 입체도형 인

식 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수업활동 속에서 사진을 활용했을 때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고 촉진되어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서혜정(2013)은 사진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유아들이 스스로 경험을 회상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유아들과 자신의 경험 및 느낌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유아들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활용했을 때 서로 창작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며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연철(2009)은 일상사진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이경률과 공주희(2010)는 사진의 교육적 활용을 시각자료, 기록의 도구, 미디어 이해 도구, 자기표현의 도구, 예술 감상의 도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진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주변 모습 및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자료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 최연철과 신설아(2013)는 유아들은 사진 속 자신의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소재가 유아의 일상 이야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유아들은 사진을 보면서 유아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미를 이야기를 통해 도출해냈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일상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유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되어 역사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의 도구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 작업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은희, 황연옥, 2008; 서현아, 박영명, 2008; 양옥승, 2007; 양진희, 2014; 오문자, 2010). 기록 작업의 결과물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사진이 사용되었다. 양옥승(2007)에 의하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기록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교실 벽면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시물의 선정은 교사의 목적과 메시지에 따라서 선별하고 표상활동으로는 주로 그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기록 작업의 결과는 유아들과 지난 경험에 대해 회상해보고 나누기 위한 지원 자료와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을 고안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교사 연구용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낮다고 하였다. 양진희(2014)는 교육현장에서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촬영하였고 교사는 유아가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물이나 대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휘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안정숙과 김소향(2012)은 사진을 활용한 기록 작업의 결과물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활동을 재구성하였고, 포트폴리오는 반성적 자기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사진을 이용한 신문 만들기, 행사 기록하기 등의 과정을 하면서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는 미디어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 서혜정(2013)의 연구에서 교사는 숲 활동에서 사진 기록화 작업을 유아와 함께 하였다. 유아가 찍은 사진을 기록하고, 교실 벽면에 게시하며, 사진을 활용한 숲 기자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진은 유아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하였고 벽면에 게시된 사진은 경험을 회상하게 도와주어 시간의 공백으로 생기는 경험의 상실을 막아주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넷째, 유아들의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자기표현의 도구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 김성애(2012)는 생태 사진을 활용하여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진은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방법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도록 했다. 사진을 보면서 유아들은 다른 유아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등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문정은(2014)은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에서 유아들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상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사진 촬영 경험을 통해 사진에 들어있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된 주제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진 매체의 사용이 다양해졌으며, 사진의 구도에 따라 새로운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창의적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예술적 감수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예술 감상의 도구로 사진이 활용될 수 있다. 문인경(2013)의 연구에서 사진 찍기를 통해 얻은 작품의 사진은 도형의 예술적인 대칭과 이동 이해 능력, 기하도형 이해 능력, 그리고 기하도형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사진을 활용하여 블록을 구성할 때 구성물을 바라보는 각도와 부분의 확대, 사진의 회전등을 고려하게 되어 위상학적인 개념도 익힐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사진은 유아에게 예술적이고 체계적인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진의 활용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처럼 다양한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일차적인 수준에서 시각적인 자료로서만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진을 촬영해 활용하고 있는 경험을 살펴보고 여러 방향에서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 대전, 충남 지역에 소재한 공·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1명이다.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풍부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목적 표집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교사들의 특징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이름	기관유형	경력	담당연령
A교사	공립유치원	2년차	만 5세
B교사	공립유치원	2년차	만 5세
C교사	사립유치원	2년차	만 3세
D교사	사립유치원	2년차	만 3세
E교사	사립유치원	2년차	만 5세
F교사	사립유치원	3년차	만 3세
G교사	사립유치원	3년차	만 3세
H교사	사립유치원	3년차	만 5세
I교사	사립유치원	3년차	만 5세
J교사	사립유치원	5년차	만 3세
K교사	사립유치원	5년차	만 4세

연구 참여자는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만 3세에서 만 5세 담임교사들로 모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초임교사를 비롯하여 3-5년의 경력이 있는 교사들로 이루어졌다.

2. 연구절차

1) 예비 연구

예비 연구는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심층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될 면담의 질문과 방법의 적절성을 알아보려고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교사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개별면담을 하였다.

예비 연구는 2015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연구의 참여자가 아닌 만 3세~만 5세의 담임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하기 전에 교사를 미리 만나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레포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조용한 카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개별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여 1인당 2회씩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준비된 면담 질문 외에도 의미를 찾기 위해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하였으며, 암시를 주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피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반응적 경청을 하였다. 각 면담시간은 평균 3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때 면담의 모든 내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개별면담을 하면서 교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 선정 시 평상시에 사진촬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사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 본 연구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총 11명의 유치원교사로 선정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와 기존에 친분이 있는 자를 선정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다. 연구자는 교사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준거적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조용환, 1999).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세운 기준은 유치원에서 사진촬영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교사로, 연구자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풍부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유치원교사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연구대상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료 수집에 있어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이종승, 2013). 본 연구는 연구에 앞서 전화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면담을 허락받았다. 심층면담 시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면담에 관한 제반 사항과 자료의 이용에 대해 설명한 뒤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때 면담 내용과 관련 문서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 및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으며 면담 도중 꺼려지는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2) 심층면담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세계, 의식,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며,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유발시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참여 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일상생활의 관찰보다는 참여 교사들의 회상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개별면담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레포형성을 위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대화와 기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며 편안한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교사는 연구자와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에 따로 레포형성 기간을 두지 않았다.

교사들이 면담하기 편안한 장소를 고려하여 카페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횟수는 현장교사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당 1~2회씩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참여 교사 섭외 후 상황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면담시간을 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비구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세부적인 내용과 그 경험의 의미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 주제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개방식 질문으로 구성된 면담 가이드 질문을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사진촬영과 경험에 관한 질문은 평소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빈도, 그리고 언제 찍는지를 물어보면서 사진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점차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진촬영을 교사들이 언제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교사에게 사진을 어떻게, 어디서 활용하고 또 사진 활동으로 인한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면담 내용은 교사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참조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유치원교사의 사진촬영과 활용경험 및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층면담과 더불어 경험을 회상시킬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사진이나 사진을 활용한 활동계획안 및 수업자료, 유아들의 사진, 활동사진, 사진이 들어간 기록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문서자료들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그 자료들의 의미 등을 질문함으로써 질문자들이 사진촬영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4) 현장 약기와 현장 노트 작성

잘 쓰인 현장기록은 이후 보고서를 작성할 시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Graue & Walsh, 1998). 이에 따라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의미 있거나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적어 기록하였다. 기록한 것을 연구 당일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현장 노트를 만들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즉시 정리, 기록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는 세부적인 느낌이나 단서들을 자료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김영천, 1998). 또한 면담 즉시 전사하고, 전사 즉시 읽고 메모하기의 반복은 다음 면담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경험을 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모든 자료의 기록화와 수집이 끝난 후에는 기록된 전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함축적인 의미로 생각되는 용어인 코드를 지정하고 전문가 및 동료와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리해 둔 자료들은 코드별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 재정리하여 개별 코드들의 의미를 기록하고 코드 간의 관계들을 정리해 가면서 발견한 내용들을 범주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된 면담 전사본과 현장 노트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 문제에 따라 사례를 추출하여 유목화 하였으며,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범주들을 하나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범주에 따라 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구성원 검토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가 얼마나 근접하게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과정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를 읽고서 평가하도록 하였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다방면으로 탐색하고 그들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심층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참조자료들을 활용하여 경험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사된 기록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발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거나 전사 도중 해석이 애매한 경우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재확인하는 등의 구성원 검토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시각에서 연구결과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격적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를 객관화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동료연구자 2인의 조언과 검증을 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자료 해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을 하면서 겪는 경험을 면담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일과시간동안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에서는 사진을 유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경구성을 구성하고, 교수자료로 활용하고, 교사의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촬영해 활용하고 있었다.

1) 유아에 관한 정보전달에 활용

교사는 유아의 생활모습을 학부모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학부모상담 및 설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아의 생활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된 사진

교사는 학부모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유치원에서의 유아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교사가 보내준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등·하원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멀리 소풍을 가거나 견학을 갔을 때는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대신 사진을 찍어서 전시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요. (B교사, 2015. 7. 23)

행사를 했을 때 아이들과 이러한 행사를 안전하고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했다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죠. 아이들과 같이 행사한 사진, 생일사진, 특별활동사진, 숲 체험, 소풍사진, 바깥놀이사진, 텃밭에서 아이들과 같이 심은 농작물활동 사진 등과 같이 아이들이 즐겁게 지낸 모습을 가정으로 보내는 앨범에 올려요. (H교사, 2015. 7. 24)

행사 때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에게 사진을 바로 보내주면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을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잘 활용한다면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J교사, 2015. 7. 28)

교사들은 사진촬영을 통해서 유아를 관찰하고, 관찰한 사진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학부모들이 유치원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진을 통해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에 가정으로 유아의 하루 일과를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한 소통과정을 통

해서 학부모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소통은 교사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활동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요. (E교사,
2015. 7. 12)

교사들은 사진이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인증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학부모와 사진을 공유하면서 유치원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진은 학부모가 교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학기 초에 아이들의 모습을 올림으로써 그 사진을 학부모님들이 보고 '우리아가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고 믿고 맡겨주죠. 그리고 활동한 사진을 보면서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죠. 또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노고가 많구나.' 라고 느끼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학부모님들이 감사해하고 교사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믿음이 쌓이도록 하는 만큼 교사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신뢰를 해주니까 사진이 많이 도움이 되죠. (H교사, 2015. 7. 24)

유치원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항상 올리죠. 그날그날 있었던 활동, 교실의 환경 구성,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바로 올려요. 학부모님들은 그 사진을 보고 우리아가 유치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고 학부모들이 확인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학부모가 교사를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I교사, 2015. 7. 27)

학부모들이 볼 수 없는 유아들의 유치원 생활모습을 사진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유아들이 교사와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어 안심하고 교사를 믿고 유아를 맡긴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사진은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2) 학부모상담 및 설명 자료로 활용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진을 이용한 상담 및 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설명이었다.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한 학부모와의 상담과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설명이 학부모를 이해시키기 쉽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부모님들에게 활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사진으로 보내주면 보시는 분들도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설명하기도 편해요. 저희는 상담기간이 따로 없어서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각자 일정을 잡아요. 상담할 때 사진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친구들과 놀 때 이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상담 자료로 많이 쓰여요. (C교사, 2015. 7. 11)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도 사진을 사용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사진을 넣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올해 새롭게 유치원에 등원한 유아들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한다는 모습을 작년 사진을 통해서 설명하고 알려드리죠. (H교사, 2015. 7. 24)

가정에서 그림일기를 적어보는 활동이 있는데 그림일기를 처음 적어보는 아이에게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일기를 잘 적은 아이의 것을 사진으로 찍어워서 가정통신문에 첨부해서 예시로 보여줘요. 그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죠. 그럼 아이의 과제도 더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H교사, 2015. 7. 24)

교사들은 상담 자료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들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사진을 근거자료로 사용했기에 학부모에게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신뢰성 있는 사진자료를 근거로 한 학부모상담으로 교사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사진을 이용한 오리엔테이션설명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이미지를 신뢰성 있게 보여 주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으로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사진이 첨부된 오리엔테이션자료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교사들은 사진이 학부모에게 유치원 교육 전반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느꼈으며, 그로인해 학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로 된 설명지를 학부모에게 보여줬을 때보다 유아들이 활동한 사진을 촬영하여 예시로 첨부했을 때 교사가 의도한 정확한 학습방법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가정과의 연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2) 환경구성에 활용

교사들은 유치원 교실 안에서 사진을 환경구성 하는데 사용했으며 유아가 활동했던 결과물에 사진을 첨부하여 교실 안에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교실에 게시하는 사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교육환경 구성에 활용된 사진

교사들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활동하는 과정과 작품들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교육 환경구성을 하였다. 사진을 이용해서 환경구성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쉽게 표현될 수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환경 판이나 교실의 환경을 구성할 때 아이들의 사진을 활용해서 꾸며주면 아이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자기얼굴이 포함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룡에 대해서 했는데 신체표현활동시간에 공룡의 포즈를 취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사진을 오려서 코팅해서 환경 판에 게시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표현한 모습이나 공룡의 모습을 더 공감할 수 있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만 3세 유아들이라서 아직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사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C교사, 2015. 7. 11)

아이들의 꿈을 발표해서 작품으로 남기는 활동이 있었는데 만약 모델이 꿈인 아이는 몸은 모델의 사진을 이용하고 얼굴만 그 아이

의 사진을 붙여서 나의 꿈을 더 피부에 와 닿게 꾸며주는 활동도 했어요. 마지막에 모빌을 만들어서 교실에 매달아 두기도 했죠. (H교사, 2015. 7. 24)

유아들도 자신이 활동했던 모습들이 전시된다고 생각되어 활동에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유아들이 풍부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환경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활동을 하고 나서 저희는 그 주제에 관해서 아이들과 수업했던 내용들을 패널(레지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자료, 크기는 다양함)로 만들어요. 거기에 아이가 말했던 내용들이나 알게 된 내용들을 적고 그것에 관한 활동사진을 여러 컷 첨부해서 한눈에 정리될 수 있게 만들어서 벽에다 게시를 해요. 패널 안에는 아이들이 했던 놀이나 활동 안에 규칙도 있고 수 개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재료 중에서 왜 그 재료를 선택해서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레지오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패널의 역할이고 그 패널 안에 사진이 들어가서 이러한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K교사, 2015. 7. 25)

사진을 이용하여 패널을 제작하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유치원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패널을 만드는 과정도 유아와 함께 진행하여 다시 한 번 활동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유아들이 했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과 활동의 이유들을 교육적인 의미와 함께 유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게시활동을 통해서 유아들과 교사들은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추후

에 다른 활동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유치원은 교실환경구성 할 때 전부 북 아트로 만들어서 게시하는데 제가 현장학습이나 수업사진과 같이 찍어뒀던 아이들 사진과 설명, 활동내용들을 첨부해서 양면 인쇄해서 책처럼 만들어서 교실 벽면에 항상 게시해뒀어요. (H교사, 2015. 7. 24)

한편, 사진을 북 아트¹⁾로 만들어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아들과 함께 활동을 구성해나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진 속에 유아들의 모습을 포함시켜 유아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작품사진으로 구성된 북 아트는 유아의 수준에 맞도록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동반되며 교실에 게시함으로써 스스로 유아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 흥미, 역량 그리고 학습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게시된 북 아트를 보면서 자기의 작품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관찰하면서 다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과 공감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일상적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한 환경구성

교육적인 활동사진 이외에 유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환경구성을 하는 경우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적으로 게시하고

1) 북 아트는 일반적인 책의 형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제작 자체를 예술작업으로서 만들어진 책이다. 북 아트는 반드시 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림과 사진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 사고를 이끌어낸다. 책을 만드는 활동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고, 글 대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글을 창작하고, 디자인 하는 통합적인 활동이다(강금엽, 2014).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촬영된 유아의 사진을 이용하여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교실의 주체가 유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진 찍은 걸로 환경 구성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과일을 모자이크를 했으면 아이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모자이크작품과 함께 작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같이 전시해요. 작품만 덩그러니 전시될 때보다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전시가 되었을 때 더 흥미 있게 바라봐요. 환경 구성을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아이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것은 새로운 환경구성을 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I교사, 2015. 7. 27)

환경 판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붙이거나 환경판을 꾸밀 때 아이들의 얼굴이나 몸동작을 넣어서 같이 꾸미기도 해요. 밖에 복도에 학부모들이 교실까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복도 지나다닐 때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데 전시할 때 아이들의 활동 모습이나 작품을 찍어서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 줘요. 솔직히 보여주기 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행사를 하고 나서 유치원 밖에 전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유치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시를 통해서 소개해주기도 하지요. (J교사, 2015. 7. 28)

교사들은 사진게시물이 유아의 포트폴리오 제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통해 유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발견 할 수 있었고, 유아와 교사가 서로 소통하여 유아의 요구와 흥미 그리고 관심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환경구성을 통하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사진자료로 게시함으로써 외부사람에게 쉽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교수자료로 활용

교사들은 평소에 촬영해둔 사진을 이용하여 교수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수업자료로 사진을 첨부하여 유아들과 같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진으로 간접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과 관찰활동이나 체험활동에 앞서서 사진을 통해 유아들에게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줌으로써 유아들이 그 곳へ 가서 활동을 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사용하여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였고 유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수업에 좀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였다.

(1)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실물자료를 사용하면 유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실물자료 대신 사진을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봄에 저희 반 창 밖에 꽃이 피어있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그 꽃이 피는 과정을 사진으로 미리 찍어두었다가 봄에 대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발견한 꽃의 모습을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했던 모습이기에 그때 봤었던 기억도 되살릴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게 나타났어요. (H교사, 2015. 7. 24)

교사들은 이처럼 꽃의 변화과정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유아와 함께 꽃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다고 하였다. 사진을 통하여 꽃이 지고 나서도 꽃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탐구 하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장면을 유아들과 함께 관찰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될 수 있었다.

만약 작년에 갔다 온 견학장소를 또 가게 된다고 할 때, 작년에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견학장소를 미리 보여줬었어요. 감자 심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감자를 심으러 갈 거니까 호미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칙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사진을 보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이들 눈에서 빛이 나듯이 관심 있게 봐요. 가기 전에 미리보고 가니까 가는 곳에 대해서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E교사, 2015. 7. 12)

사후활동시간 때 찍어둔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이전에 했던 활동을 자연스럽게 회상할 수 있고 그때의 순간들을 다시 보면서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름을 같이 외울 수도 있고 사진에서 자기얼굴이 나오니까 더 관심 있게 봄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수 있어요. (C교사, 2015. 7. 11)

사진은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재연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교사들은 사진을 현장학습을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에 사전 및 사후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하였다. 사전활동으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유아가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보고 싶은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연구해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실제 그곳에 갔을 때 이전에 계획한 자신의 목적에 따라 관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후활동으로도 사진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갔었던 장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유아들은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익숙한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회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막연하게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보다 사진을 활용하여 회상하게 되면 유아들이 직접 느낀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게 되어 교사가 직접적으로 교수하지 않아도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기 초에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름을 같이 외울 수도 있고 사진에서 자기얼굴이 나오니까 더 관심 있게 봄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수 있어요. 또한 글씨를 모르는 어린 연령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글씨를 못 써서 사진으로 활동설명을 대신 할 때도 있었어요. 사진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해를 훨씬 빨리 했거든요. (C교사, 2015. 7. 11)

사진은 유치원에서 수업자료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촬영한 사진 속에는 유아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나 유아의 생활 주변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유아들은 사진을 보면서 익숙한 것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자신의 주변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여 학습으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사진 속에 유아의 얼굴이 담겨있어서 유아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고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높은 관심과 집중도를 보였다고 인식하였다.

사후활동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전의 기억을 쉽게 되살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아직 한글을 모르는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여 글로 표현된 한글 활동을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도 사진을

통한 설명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 교구제작에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유아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교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은 생활주제에 해당하는 교구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교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생활주제에 맞게끔 교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퍼즐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자기 얼굴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니깐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퍼즐을 맞추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얘기도 하고 사진이 누구 것인지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기도 했어요. 처음 친구들 얼굴을 잘 모를 때 서로 얼굴 익히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B교사, 2015. 7. 23)

이름표를 이름만 적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사진을 넣어서 만 들어요.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름과 얼굴사진을 같이 넣어줘요. 자신의 얼굴이 담겨있으니까 이름표 하나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어 해요. (B교사, 2015. 7. 23)

약속 지키기에 대해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교구로 제시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교구를 통해 보고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H교사, 2015. 7. 24)

학기 초에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 겪는 낯선 분위기와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사들은 작은 이름표 하나에도 유아의 얼굴 사진을 첨부해서 만들어주어 익숙한 나의 얼굴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사진이 들어간 교구를 통해서 아직 생소한 친구들의 얼굴을 익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데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유아들의 기억을 일깨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했던 모든 행동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기억속에서도 금방 잊혀 진다. 그러나 교사들은 사진이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사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유아들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간간히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나 전과 달리 생활습관이 잘 잡힌 모습을 서로 비교해보기도 해요. (E교사, 2015. 7. 12)

만 3세(5세)는 학기 초에 기본생활습관이 안 잡혀 있잖아요. 처음 줄서기를 해보았을 때 유치원 안에서 줄을 서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야기나누기시간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개선되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있어서 이야기나누기 시간 때 지켜야 되는 약속을 더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생활습관을 개선할 때 유용한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

있을 때도 사진으로 찍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감정 이입이 되어서 문제해결을 더 효율적으로 해냈었어요. (D교사, 2015. 7. 26)

교사들은 유아의 평소 모습을 사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기본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진을 활용하여 지도해 줌으로써 사진에 있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기본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유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교사도 사진이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4) 유아평가에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진 속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매일 하루에 30분~1시간정도 자유선택활동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둬서 활동이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리뷰 하듯이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내가 어느 영역에서 놀이를 했었고, 교구와 매체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어떤 놀이를 했었는지 회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놀이를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했던 놀이를 보고 '아, 저렇게도 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다음 놀이시간 때에 자신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놀이를 계획해보도록 의도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놀이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해요. 이러한 평가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날 놀이를 지원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사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K교사, 2015. 7. 25)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기가 했던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거 제가 안 했어요.’라고 회피하는 경향이 큰데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요. 아이들이 사진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더 깊게 와 닿을 수 있고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죠. 또한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진이 찍힌 상황 이외에 앞에 있었던 상황과 뒤에 일어난 상황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K교사, 2015. 7. 25)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우치고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성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은 놀이를 지원하고 계획할 때 유아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진은 교사가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유아가 함께 참여하고 유아가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4) 교사의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에 활용된 사진

(1) 수업연구에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활동 속에서 촬영한 사진이 수업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관찰함으로써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운지 그리고 좋은 점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동사진을 이용해서 교사용 수업자료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고 연구수업 후에도 자료를 남기고 보관해야 해요. 평소에 활동 사진과 환경구성사진을 많이 찍어서 수업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어요. (C교사, 2015. 7. 11)

제가 교사로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놀이인데 아이들에게 놀이가 잘 지원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사진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알아야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달라지고 올바르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휴지 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제시해주고 활동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봤더니 휴지 심을 자르지도 못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노는 듯 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놀이를 지원함에 있어서 의도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놀이 지원을 아이들에 맞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휴지 심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볼 수 있겠다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사진을 통해서 활동을 반성해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좋게 해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어요. (K교사, 2015. 7. 25)

교사들은 유아를 위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겨가는데 사진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사진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을 관찰할 수 있기에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사진을 통한 수업연구는 다양한 교수방법개발 및 효과적인 학습전달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 결과 유아를 위한 교사로 성장하게 해준다.

아이들 관찰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사를 하는데 그 문서에 사진이 첨부되어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사된 자료와 사진을 같이 보면 어제 했던 활동이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발전되었고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적혀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 유치원에서 만5세(7세)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의 중요성을 피부로 와 닿게 많이 느꼈죠. (K교사, 2015. 7. 25)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은 다른 유치원보다 사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아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작성할 때 사진도 같이 첨부하여 그 사진을 참고하면서 유아의 행동을 작성하였다. 관찰지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유아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사진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하여 유아를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남기는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업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2) 수업개선에 활용되는 사진

교사들은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그 장면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장학까지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사진에 담긴 장면 속에는 교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후에 사진을 보면서 놓쳤던 것을 파악하며 반성할 수 있기에 자기장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촬영된 사진을 보고 제 수업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개선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사진 속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활동에 흥미를 느꼈는지, 집중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이 어땠는지 교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반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D교사, 2015. 7. 26)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진을 찍지 않는 상황이라면 평소에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갔을법한 일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더 집중해서 그 상황을 관찰할 수 있고 활동하는 과정, 하는 모습, 작품, 행동, 결과물을 세세하게 확인 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사진 찍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죠. (I교사, 2015. 7. 27)

교사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부터 수업개선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촬영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던 장면들을 한 장면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미처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진을 촬영하면서부터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두 번째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유아들이 활동하는 과정, 모습, 활동의 결과물인 작품, 그리고 유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표현과 행동들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교사는 활동 속에서 무엇이 좋았고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과 작은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고, 사진은 교사 스스로 장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교육기관에서 사진의 의미는 너무 커요. 사진 자료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교사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로 남게 되죠. 사진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자료예요. (K교사, 2015. 7. 25)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쉽게 기록·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록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다. 교사들은 디지털매체를 활용하면 어디든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진자료는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보관만 잘 되어 진다면 추후에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쇄기록처럼 세월이 지나게 되면 원래의 모습과 달리 색상의 변질과 같은 질적인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다.

연구수업 때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활동사진이랑 환경구성을 찍어요. 아이들만 찍는 게 아니라 교구나 환경 구성된 부분도 찍어서 평가의 자료로 남겨둬요. 연구수업 활동계획안 안에도 활동 때 필요한 교구와 자료들을 찍어서 계획안 안에 같이 작성해요. (C교사, 2015. 7. 11)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유치원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천하게끔 수업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데 쓰이기도 하지요. (B교사, 2015. 7. 23)

사진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짝 같은 존재예요. 평소 사진 찍은 것을 보관해두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 성향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문자로 기록하지 않아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고 의도적으로 관찰하지 않아도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저한테도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I교사, 2015. 7. 27)

교사들은 사진을 기록매체로 이용하여 활동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계획안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실제로 유치원에서 실행했다는 증거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촬영하여 아이들이 발달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여 활동계획안, 수업자료구성, 면담자료구성, 부모용 유아 설명자료, 관찰기록부, 교재교구, 사후평가서 등과 같이 기록매체로 이용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면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기로 모두 적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자료 수집이 용이해졌고 사진을 통해 기록을 남기면서 수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었고 동시에 정확도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진 기록 자료는 교사에게 값진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어려움

교사들은 사진을 유용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의 어려움에는 사진을 과도하게 촬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는 어려움, 많은 양의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어려움,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유아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는데 중점이 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 등이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되었다.

1) 과도한 사진촬영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1) 수업보다 사진에 치중되면서 겪는 어려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많은 사진을 요구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해야 함과 동시에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므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사진인지, 사진을 찍기 위해 활동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진으로 꼭 자료를 남기고 보여줘야 하니까 사진을 꼭 찍기 위해서 활동을 계획할 때도 있어요. 활동을 계획할 때도 '이 부분에서 사진이 멋지게 나오겠다.'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 그 활동에 맞게 행동이나

표정을 연출하게 할 때도 있어요. 진짜 꽃향기를 맡고 있는 게 아닌데 사진에서는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하기도 해요. (C교사, 2015. 7. 11)

사진의 특성상 사진은 단편적인 모습만 담겨있고 수업하는 과정을 찍기에는 제가 수업에 개입을 해야 하기에 찍는 건 힘드니까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과정은 볼 수 없고 결과만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 과정보다는 결과물이 담긴 사진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이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보이는 부분이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F교사, 2015. 7. 16)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가야되는 사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결석을 해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할 시기도 아니었지만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만 따로 불러서 활동을 시키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한 장이라도 사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다시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경우죠. (J교사, 2015. 7. 28)

바쁜 와중에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으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흔들리고 이상한 표정이나 모습이 담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을 사용하게 될 경우나 못 올리게 될 경우 학부모에게 한마디라도 남겨줘요. ‘어머님, 사진을 바쁘게 찍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리게 나왔네요. **이가 워낙 밝은 친구라서 사진을 찍을 때 개구쟁이가 되는 거 아시죠? 카페에 사진을 올릴 건데 아이의 사진이 많이 흔들려서 카페에 사진을 올리기가 그래서 못 올리게 되었어요. 그 대신 다음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예쁘게 올려드릴게요.’ 라고 꼭 남겨요. (H교사, 2015. 7. 24)

C교사는 사진을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적으로 유아의 발달과정과 흥미 그리고 요구에 맞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수업의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활동의 중점은 사진촬영으로 변질되고 인위적으로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 상황을 연출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

요리활동을 하는데 비닐장갑을 계속 껴다가 사진을 찍는다고 벗었다가 하니까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다 사진도 찍고 활동도 진행해야 되니까요. 매번 활동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이렇게 번거로운 상황이 항상 있어요. 활동 진행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활동과정을 찍지 못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야 사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걸 들고 찍게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들의 활동모습은 아니잖아요. (E교사, 2015. 7. 12)

아이들 얼굴을 다 찍어야 하잖아요. 만약 무씨 심기활동을 할 때 흙에 씨를 심고 덮어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활동에서 아이들마다 다 사진을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활동이 끊어지게 되죠. 아이들한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하면서 아이들의 활동을 중단하고 부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H교사, 2015. 7. 24)

교사들은 사전에 수업을 계획 했지만 사진촬영으로 인해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보조교사 없이 담임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사진촬영까지 동시에

하게 되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을 해야 되기에 수업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고 방해가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의미를 벗어나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는 사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가정으로 보내야하는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진 촬영의 초점은 학부모로 치우치게 되고 교육적인 면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유아의 단편적인 모습을 중점으로 촬영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미 지나간 활동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못했다면 흐름이 중간에 끊겨도 다시 그 활동을 재연하는 경우, 유아들의 포즈나 표정을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 사진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학부모에게 사진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일부교사들은 교직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2) 유아보다 사진촬영에 초점이 기울어지면서 겪는 어려움

교사들은 유아들과 야외활동이나 견학에서 사진촬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아들도 돌보아야하고 사진촬영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교사입장에서 큰 부담감으로 느껴진다고 인식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사진을 원하지만 야외활동이나 견학을 가서 일어나는 활동은 모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진을 전부 촬영하지 못하면 교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이나 야외활동을 나가면 아이들은 산만한데 사진까지 찍어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관하는 작업은 사진 찍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보여주기 식이라도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얼굴이 잘 나오기를 바라니까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 얼굴이 예쁘게 나오게끔 시선도 끌어야 하고 표정도 신경써야하고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통제를 해야 하니까 힘들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나중에 확인했을 때 제대로 나온 사진이 한 장도 없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 와요. 사진이 없는 학부모에게 변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견학가면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사진을 우선 찍고 나서 구경을 하거나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F교사, 2015. 7. 16)

음식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바나나를 썰는 과정이 있으면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진행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몇몇의 아이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모둠별로 멈추면서 사진 찍는데 아이들은 눈앞에 바나나가 있고 사진을 찍은 다른 친구들은 활동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아직 사진을 찍지 못해서 제가 시작하라고 안 했으니까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진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그 활동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사진을 찍는 저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J교사, 2015. 7. 28)

교사들은 유아들의 사진을 모두 담기위해서 유아들이 교육적으로 활동해야 할 시간까지 할애하여 교육활동 대신 사진촬영에 몰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들이 관찰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교사들은 사진촬영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유아들을 위해 야외활동이나 견학을 가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닌 학부모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활

동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처럼 활동의 중점이 유아가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으로 초점이 기울어져서 교사는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진보다는 학부모를 위한 사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 찍었을 때 원래부터 표정이나 포즈가 어색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같은 표정 같은 포즈로 다름이 없는 아이들과 같이 사진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경우에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사진을 원해서 찍는 게 아니 자나요. 근데 교사가 원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자꾸 교사가 웃으라고 하니까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C교사, 2015. 7. 11)

작년에는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억지로 사진을 찍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을 찍거나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아도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한 장도 없거나 몇 장 없으면 그 아이의 학부모가 사진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서운해 하더라고요. (D교사, 2015. 7. 26)

교사가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솔직히 한 아이의 사진을 찍다가 제가 보지 못한 다른 아이에게 안전사고가 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B교사, 2015. 7. 23)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진을 꼭 찍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점점 의무라고 인식하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진은 유아가 해맑게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지만 사진을 찍는 매순간마다 유아의 기분과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진을

위해 유아들에게 웃음을 요구하는 등 인위적인 사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사진촬영을 위해 한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뒤에 남아 있는 다른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방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는 한명이고 사진 찍을 유아는 20~30명인데 개인사진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을수록 유아가 방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2) 사진작업이 과중한 업무로 변질되면서 겪는 어려움

(1) 많은 양의 사진 분류 작업으로 인한 어려움

교사들은 촬영된 사진을 분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진은 삭제하고 찾기 쉽게 정리해야 해줘야 한다. 매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전체 유아들의 사진을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사진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폴더 별로 나중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정리하는 법을 잘 몰라서 정리를 깔끔히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정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냥 두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나씩 해야 되는 수작업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죠. (H교사, 2015. 7. 24)

사진에 아이들 이름이 하나씩 적혀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진을 찾으려면 처

음부터 다시 분리하면서 봐야 해요. 또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정리를 항상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진을 쌓아둘 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사진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일 사진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 명의 아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진의 수도 엄청나고 아이 별로 월별, 영역별, 주제별과 같이 분류해야 되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C교사, 2015. 7. 11)

사진을 찍다 보면 한 장만 찍는 게 아니고 아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찍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사진이나 필요한 사진만 뽑아내야 하잖아요. 저희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당 2장씩만 찍는다고 해도 60장이 되잖아요. 선별하고 정리하는데 손이 많이 가죠. 또 이름별로 사진을 수작업으로 다 나눠야하니까 엄청난 사진을 정리해야 되서 시간도 많이 걸려요. (I교사, 2015. 7. 27)

한 명의 아이의 사진을 찍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유아들의 사진을 찍고 관리해야하기에 이름별, 날짜별, 상황별, 사진의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업무가 된다고 하였다. 사진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조금이라도 미루게 되면 사진을 정리하는 시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기에 교사들은 다른 많은 업무 이외에 사진을 정리하는 업무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필름카메라와 달리 사진을 간편하게 컴퓨터에 옮길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반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진을 찍고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손이 많이 가죠. 사진을 찍었으면 컴퓨터에 옮겨야 되고 사진의 용량이 너무 크면 크기도 변환해야 하잖아요. 교구에 사진을 이용할 때도 화질이 깨지지 않게 나오게 하려면 확실히 크기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걸 일일이 해야 하니

까 일이 많아지죠. 이름표도 사진을 넣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하고 다 수작업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작업이죠. (B교사, 2015. 7. 23)

매주 목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꼭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다 올릴 때까지 퇴근을 못해요. 또 결석해서 사진을 못 찍은 아이가 있었는데 왜 사진이 안 올라 오냐고 문의가 들어올 때는 난감하죠. (D교사, 2015. 7. 26)

이른 아침부터 늦은 퇴근까지 유아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교사의 일과는 바쁘고 힘들지만 수업준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까지 이행해야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퇴근시간도 늦춰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진과 관련된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 사진촬영과 활용에 필요한 사진기술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

교사들은 디지털카메라의 사용법이 간단하나 교육적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카메라의 구도나 초점을 맞춰야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사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찾아낼 수 있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저는 유치원교사이지 사진 찍는 사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받는 교사가 되려면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사비로 카메라를 사서 적응하기 위해서 어제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잤어요. 왜냐하면 찍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제 카메라의 기능을 잘 알아야지만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인물에 맞는 사진, 배경, 환경 등에 맞는 사진을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야 한다는 부담감, 개인별 사진을 골고루 다

찍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사진을 못 찍게 된 아이의 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부담감 등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려워요. (H교사, 2015. 7. 24)

교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보다는 버려지는 사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사진 작업의 업무량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처음 교사가 되면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은 찍어서 남겨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니까 좋은 사진을 찍기 어렵죠. 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사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사는 사진을 찍을 당시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르는 경우 ‘저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장면이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진을 찍는 기술과 기법 그리고 안목은 경험에 의해서 차츰 생기는 것 같아요. (K교사, 2015. 7. 25)

사진을 찍을 때 배경도 신경을 써야 해요. 교실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있는지, 사진의 주인공인 아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의 표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D교사, 2015. 7. 26)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수고가 필요하죠. 초반에는 카메라를 다룰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만 찍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점이 아이를 찍는 건지 배경을 찍는 건지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헤맸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만의 사진

찍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이제는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힘든 점은 나만의 사진 찍는 요령이 있고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기술적인 면과 사진을 찍는 방향이 다르니까 부탁하기 애매하죠. (I교사, 2015. 7. 27)

교사들은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교사생활의 경험에 의해서 사진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직접 촬영해보면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촬영의 기술과 기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서 교사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족한 일손으로 겪는 어려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보조교사가 많이 부족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사진촬영과 수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수업 때 사진을 찍게 되면 교실 안에 교사는 저 혼자밖에 없고 대신 사진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저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는 힘들죠. (F교사, 2015. 7. 16)

누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찍어주면 좋겠지만 혼자서 해야 하니까 활동하는 것 이외에 사진을 찍어줬던 아이들과 못 찍은 아이들도 다 기억해서 신경 써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진짜

많은 상황에서 찍다 보면 누가 안 찍었는지 헛갈리고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 힘들긴 하죠. (J교사, 2015. 7. 28)

담임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나가면서 유아들의 상태도 항상 점검해야하고 안전사고에도 항상 유의하며 유아들을 보살펴야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진 촬영까지 해야 하기에 교사의 일손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과포화상태이고 도저히 교사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수업이 될 수 없기에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촉박해요. 교사가 두 명이지만 한 사람은 아이들을 봐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사진을 찍지는 못해요. 사진은 그 찰나의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활동이 있는 체육활동시간에도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이 있죠. (B교사, 2015. 7. 23)

반면 공립유치원교사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지만 사진을 촬영하는 교사도 유아를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을 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유아를 돌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업무가 벽찬 상태인데 사진촬영까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3) 사진 관리의 어려움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으로 많은 사진을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계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교사들은 사진을 저장해두었던 외장하드디스크의 고장으로 인해서 이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모조리 잃어버린 경험을 하였다.

외장하드가 한번 고장 나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3년 전 사진과 자료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백업도 자주하고 n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이중, 삼중으로 조치를 취하죠. 한 곳에서 잃어버려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게 여러 군데에 보관을 하는데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언젠가 또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외장하드를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걸 산다고 해도 기계의 수명이 있고 오류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안하죠. (F교사, 2015. 7. 16)

외장하드대신에 USB에 저장해둬요. 그래서 지금 USB를 5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컴퓨터 D드라이브에도 저장해둬요. 외장하드를 복구할 수 있지만 30만원이나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복구를 돈 주고 한다고 해도 복구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B교사, 2015. 7. 23)

사진을 잃어버린 그때 이후로 없어진 사진만큼 또 사진을 엄청 찍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씨디에 담아서 사진을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진이 너무 없으면 다른 반이랑 비교되기도 하잖아요. (J교사, 2015. 7. 28)

사진을 찍는 기기 별로 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할 때 사진을 옮기고 이용하려면 연결 잭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고장 나거나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둔지 못 찾으면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잘 보관해야 되고 카메라도 고장 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해요. (C교사, 2015. 7. 11)

디지털기계는 기계적인 오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사진과 그 속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자료들이 사라지는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교사들은 사진을 이중, 삼중으로 보관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외장하드디스크의 메모리 용량이 USB보다 커서 많은 사진을 보관할 수 있지만 고장이 쉽게 난다는 단점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여러 개의 USB에 사진을 저장한다던지 컴퓨터 D드라이브에도 저장하는 등 사진을 한 곳에서 잃어버려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진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을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없어진 사진의 양만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은 사진촬영에 더 집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4)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한 지원체제에서 겪는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진촬영과 활용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카메라를 지원해주는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좋을수록 사진도 예쁘고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옆 반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사진은 제 개인 카메라나 핸드폰을 사용해요. 왜냐면 유치원에 배치된 카메라가 있기는 하지만 딱 두 대밖에 없어요. DSLR (Digital Single Lens Reflex)카메라와 똑딱이 카메라(콤팩트카메라)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유치원에 있는 모든 교사가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카메라를 샀었어요. 작년에 산 카메라는 똑딱이 카메라인데 사진이 우리 반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카메라를 샀는데 저번보다 더 좋은 걸로 사려고 하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중고 DSLR카메라를 40만원주고 구입했어요. 사진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카메라가 좋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사진

보다 버리게 되는 사진이 많아지더라고요. (H교사, 2015. 7. 24)

유치원에서 카메라를 지원해주지만 그 카메라가 지금 고장 난 상태예요. 그 카메라를 고치려면 제가 직접 서비스센터에 가서 제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말일 날 제가 돌려받도록 되어있는데 번거로우니까 제 개인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죠.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핸드폰카메라도 화질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잘 찍히지만 제 개인사진이랑 같이 보관되니까 불편할 때도 있죠. (E교사, 2015. 7. 12)

유치원에 카메라가 한 개가 있지만 너무 옛날 카메라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가 없으면 사비로 사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카메라도 화질이 좋고 연결해서 사용하기 편해서 핸드폰카메라로도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교실에 아예 들고 가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찍고 싶어도 못 들고 가서 못 찍어요. (J교사, 2015. 7. 28)

많은 유치원에서 디지털카메라의 지원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디지털카메라를 지원한다고 해도 교수매체로서 카메라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지만 교사의 수에 맞게 디지털카메라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카메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보다는 버려지는 사진이 더 많아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체제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교사들은 사진촬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 개인 카메라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대신하여 각자 소지하고 있는 개인 핸드폰카

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핸드폰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에 못지않게 화질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디지털카메라의 사용보다 간편하다고 하였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곳은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교사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일과시간동안 많은 사진을 촬영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사진을 유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경구성을 구성하였으며, 교수자료로 활용하였고, 교사의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진은 유아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진이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인증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부모와 사진을 공유하면서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기록된 유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교사는 웹기반을 통해 학부모교육, 가정통신문, 교육활동 설명, 학부모들과의 의견교환 등의 가정연계활동을 할 수 있다는 권현주(2005), 문정의(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경철, 박현진(2005)에 의하면 교사가 사진을 활용하여 학부

모와의 상담을 할 경우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사진을 통한 상담이 부모와의 소통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기에 앞선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사들은 평소에 학부모가 관찰할 수 없는 유아들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사진으로 유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바라는 바를 교사가 잘 파악하고 전달할 때 가정과 기관의 소통의 연계성이 증진되어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므로(서영숙, 1989) 사진은 교사와 부모 사이에서 나타난 필요와 요구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소통의 효과성이 증대되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환경구성을 위해 유치원 교실 안에서 게시의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사진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환경을 구성에 사용하는 경우와 교실을 꾸미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의 활동 과정 모습이나 결과물인 작품들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교육 환경구성을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신이 활동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작품들이 전시되기를 원하면서 활동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사진을 게시할 때 일반적인 유치원에 비해서 사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사진을 활용하여 패널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패널을 통한 사진의 전시는 사진을 편집하고 선별하여 제작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있기에 유아들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전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패널을 통해 유아들과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송윤재(200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패널의

사진을 보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촬영된 사진의 전시 작업이 유아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고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들은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여 북 아트로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한다고 하였다. 북 아트는 제작하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의 수준에 맞도록 스스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지연, 2011). 유아가 사진을 활용해서 북 아트를 완성하여 전시하게 되면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북 아트 속 사진을 보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고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 및 언어적 요소에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교사들은 생각하였다.

교육적인 사진 이외에도 유아들의 일상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환경구성을 하는 경우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끄는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일상적인 유아의 모습을 교실에 게시하여 교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주체가 유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문정은, 2014)는 연구와 일치한다. 교사들은 사진 전시를 통해서 유아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 전시는 유아의 요구와 흥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사진이 교사가 교수자료 및 부모와의 상담 자료를 구성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들은 평소에 촬영한 사진을 수업자료, 교구제작, 기본생활습관 지도, 유아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재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에 사진으로 간접경험이 가능하다. 유아는 사진을 보면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한봉희, 1996) 사진은 교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진을 활용한 수업은 유아

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업자료 구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한 간접경험은 사전 및 사후활동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의 이해를 돕는데도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이경률과 공주희(2010)의 연구에서도 사진을 통한 교육은 현실 인지 능력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쉽게 유추하는 상상적인 재구성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기본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사진은 자기반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우연히 일어난 상황들도 사진을 통해 흔적을 남기면서 일상적인 경험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오문자(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평가를 위해 수집된 사진은 단순히 사실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하기에(이진희, 2014) 유아는 사진을 보면서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진은 교사의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관찰함으로써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운지 그리고 좋은 점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경철(2000)은 교사가 관찰이나 기억, 수작업에 의한 기록 등을 동시에 다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아의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진은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수업 연구 및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부터 수업에 관한 연구는 시작되며 사진으로 촬영된 장면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질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강화되어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사진을 통한 교수 연수 및 장학활동은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과 세세한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교사에게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신장을 키워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에서도 사진은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순환을 만들어 주어 교육활동의 방향을 지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유혜령, 2005).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여 교수연수 및 장학활동을 하면서 교사가 스스로 교육활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며 반성적 사고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은 쉽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록 작업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유치원에서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동안 현실적으로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김은숙, 한미라, 2009). 즉각적인 상황에서 많은 현상의 의미를 기록하여 담아주는 사진은 촬영하면서부터 이미 기록하는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김철권,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사진은 연속으로부터 얻은 한 순간을 고립시키고,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사들이 활동계획안 및 교육활동 기록, 문서자료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김경철, 박현진(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사진을 담는데 용이한 디지털카메라는 유아들의 학습과정을 마치 비디오처럼 볼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기록 작업을 통해 유아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교사의 교수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데 편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은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며 동시에 사건을 기록하는데 정확도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 작업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기록의 정확도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진을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다양한 기능에 대해 탐구하고 활용해볼 수 있어야 한다.

2)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어려움

사진촬영과 활용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어려움에는 과도한 사진촬영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사진작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 사진 관리의 어려움,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한 지원체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많은 사진요구로 인해서 교사들은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해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므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수업보다 사진에 치중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유아보다 사진촬영에 초점이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사진을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수업의 방향을 사진촬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자연스러운 유아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는 교육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지만 (김경철, 박현진, 2005) 학부모가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는 교직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사는 유아들도 돌보아야하고 동시에 사진촬영까지 모두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진을 활용하는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서 사진을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교사가 사진촬영에 집중하게 될 때 유아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손용희(2008)는 교사의 방심이나 주의소홀이 유아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사진촬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사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어서 많은 양의 사진을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많은 양의 사진으로 인해 교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리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로 인해서 사진의 기술까지 연구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사진의 찍는 기술을 교사 스스로 터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가 많은 업무 이외에 사진을 정리하는 업무까지 도맡아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효진, 정정희, 홍희주(2013)의 연구에서도 보도된 바와 유사하다. 같은 맥락에서 김연미(199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수업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하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었다. 교사는 교육활동 이외에의 사진에 관한 많은 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공립유치원교사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보조교사가 없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박미리(2012)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수업외적 업무의 부담감이 큰 경우 과중한 수업외적 업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요인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진촬영과 활용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으로 사진을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카메라 기계의 오류로 인해 저장해두었던 사진들이 모두 사라지는 위험도 있었다. 또한 많은 양의 사진 및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으려면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데(김경철, 박현진, 2005) 많은 사진을 용이하게 저장할 수 있는 외장하드디스크는 보관이 편리하지만 이 또한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 사진 및 보관된 자료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남영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의 편리성만 강조되고 있지만 사진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는 한순간에 모든 정보가 없어질 위험이 있어서 디지털 사진의 보존성은 디지털 기록매체의 안정성에 의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와 연구가 요구된다. 사진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을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없어진 사진의 양만큼 다시 사진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은 사진촬영에 더 초점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과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진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으로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진촬영과 활용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디지털카메라를 지원해주는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하였다. 김경철, 박현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 운영자와 교육지원자는 현장에서 교사가 어떠한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적절한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교육적으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되었지만 많은 유치원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진 활동에 필요한 카메라의 질이 좋지 않거나, 유아교육기관에 단 한 대도 없어서 교사의 개인핸드폰카메라나

개인 사비를 들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개인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진 촬영과 활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은 사진촬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정규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기에(김태은, 2015)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어서 개인 경비를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사들은 사진촬영과 활용에 적합한 카메라를 유아교육현장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카메라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교사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이 환경을 충분히 지원해줄 때 교사의 직무성 및 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허경아, 정정희, 2012). 하지만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진기를 지급하는 등의 기초적인 지원체제가 아주 미흡하였고 이로 인한 낮은 교육환경의 질이 유아와 교사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에서 사진은 유아의 생활모습을 학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되었고, 학부모상담 및 설명 자료로 활용되었다. 즉, 사진으로 인해 가정과 기관의 소통의 연계성이 증진되었고, 교사와 부모 사이에 나타난 필요와 요구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교사는 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의 일상적 모습이 담긴 사진은 교실환경 구성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사진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하면서 유아들의 창의성 및 언어적 요소에도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사진을 교수자료로 이용하여 수업자료 및 교구제작에 활용할 수 있었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평가를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는 사진을 보면서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겪었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사진을 활용하여 쉽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록 작업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사진은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데 편리하며 기록의 정확도를 높여주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다.

둘째, 수업보다 사진에 치중되면서 사진촬영이 수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유아보다 사진촬영에 초점이 기울어지면서 의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너무 많은 양의 촬영된 사진으로 인한 분류작업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교사의 사진촬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 유아가 방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사진을 위해 사진촬영의 기술을 교사 스스로 터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들은 사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교사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사진촬영과 활용에 할애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디지털카메라 기계의 오류로 인해 저장해두었던 사진들이 모두 사라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디지털 사진보관의 편리성에만 집중되어 안전하게 사진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교사들은 안전하게 사진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의 디지털카메라를 지원해주는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이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직무성 및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진촬영과 활용에 적합한 카메라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 중에서 유치원에서의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어려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이외에 사진촬영과 활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측면도 포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치원에서의 사진촬영과 활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서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진을 다양하고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개선점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모두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식이 아닌 과거 경험을 기억정도에 따라 응답하거나, 방어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진촬영과 활용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으로 들어가서 참여관찰 등과 같이 보다 더 심층적인 방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금엽(2014). 사진을 활용한 어린이 북 아트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주(2014). 유아들의 디지털 사진 기록하기와 재방문에 관한 경험. 유아교육연구, 35(1), 53-82.
- _____ (2015). 만 5세 장미반 교사의 기록화 과정과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험. 인문학논총, 35, 73-111.
- 고선경(2006). 사진매체의 특성을 통한 다중적 자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주희(2012). 유아기 교육매체로서 사진의 활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황(2006). 사진교환 의사소통 체계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유아의 말하기 표현신장에 미치는 효과. 정서. 행동장애연구, 22(1), 817-888.
- 권현주(2005). 자녀의 전자포트폴리오 평가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철(2000). 유아평가와 수행평가. 2000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3-95.
- 김경철, 박미정(2009). 사진 활동을 통한 유아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변화. 어린이미디어연구, 8(2), 65-98.
- 김경철, 박현진(2005). 디지털카메라의 유아교육기관 현장 활용. 어린이미디어연구, 4, 129-156.
- 김문정, 양종훈, 정영근(2010). 어린이 사진교육 프로그램 LIP의 이해와 분석: 사진교육학의 관점에서.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13, 9-27.
- 김성애(2012). 생태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향(2011). 사전설계, 사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블록놀이가 유아의 추론 능력, 수학적 능력,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91-211.
- 김승미(2014). 사진 찍기를 통한 표상활동이 유아의 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미(1992). 사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의 근무활동과 시간활애에 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1998).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_____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은숙, 한미라(2009). 레지오 에밀리아 적용 유치원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 교육이론과 실천, 18, 47-79.
- 김은희, 황연옥(2008). 유아교사의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 변화. 변형영유아교육연구, 2(1), 5-29.
- 김정미(2008). 사진자료를 활용한 아동과 교사의 환경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1). 학교교육으로서 사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학회지, 24, 7-17.
- 김창수(2009). 교육매체로서의 사진.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 김철권(1999). 사진의 의미와 사진의 구조. 서울: ONE& ONE.
- 김태은(201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율성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8). 사진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중등미술교육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식(2002). 사진과 언어를 통한 심상의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남영숙(2009). 디지털 사진의 장기 보존성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연숙, 현혜연, 하동환(2007).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유아 사진 교육이 이미지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AURA, 16, 64-72.

류혜숙, 장정애, 김정주, 조형숙(2008). 생태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7(1), 57-72.

문인경(2013). 사진 찍기를 통한 쌓기 놀이 평가활동이 유아의 기하도형이해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은(2014).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의(2004). 전자 포트폴리오 평가가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발달평가 일치도 및 어머니의 유아교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순옥(2011). 유아를 위한 신문 사진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화(2014). 친구 사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본 유아들의 우정 이야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리(2012).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외적 업무 부담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2009). 사진 활동을 통한 유아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철(1993). 사진 표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배연희(2010). 사진 찍기를 통한 산책활동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은미(2008). 환경사진지도 만들기에 나타난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주현(2009). 사진을 활용한 쓰기 교수 학습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숙(1989). 유아교육과 가정환경.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교육의 본질과 방향. 서울: 양서원.

서현아, 박영명(2008).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현장 적용 실태. 생태유아교육연구, 7(2), 59-82.

서혜정(2013). 사진기록화 작업으로 숲 활동을 교실에 연결하는 숲반의 경험에 대한 교육적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151-180.

손용희(2008). 유아용품에 의한 유아 안전사고실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윤재(2003). 레지오 접근법의 유아교육 현장적용을 위한 교사지원 인터넷 커뮤니티 개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경숙, 김소향(2012). 사진설계, 사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블록구성놀이에 대한 교육적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2(1), 83-106.

양옥승(2007).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의 기록 작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적용실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희(2014). 카메라 프로젝트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511-526.

오문자(2010). 레지오 알아보기: 한국에서 레지오 교육의 재구성. 서울: 정민사.

유혜령(2005).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레지오 기록 작업의 의미: 불안과 희망의 양면성. 한국레지오교육협회 제 1회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35-49.

- 이경률(2008). 유아교육을 위한 비주얼 리터러시와 사진의 이해. 아동보육복지연구, 1(2).
- 이경률, 공주희(2010). 사진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아 교육 현장에서 사진의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AURA, 23, 6-15.
- 이모아(2013). 유아 촬영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가 일과활동의 자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은(2013). PIE를 통한 창의성 향상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2012). 사진을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8). 사진을 이용한 비주얼 리터러시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혜(2006). 일상사진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원(2007). 초등 미술과 수업에서 시각적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사진을 활용한 미술과 수업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2001).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현장 적용 실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2014). 자연 사진 감상과 연계한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과학 과정기술 및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2007). 일상생활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가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승(2013)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이진희(2014). 사진을 활용한 자유선택활동 놀이 평가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규(2003).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식(2015). 산책활동 사진 찍기에 나타난 유아의 경험 탐색.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심, 유성호(2006). 사진을 활용한 시 창작 교육의 가능성. 교원교육, 22(3), 135-153.
- 정한조(1997). 사진 감상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 정현주(2002). 사진을 이용한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의 그림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효진, 정정희, 홍희주(2013). 교사특성에 기초한 레지오 교사의 관심사 및 어려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1), 55-80.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최연철(2005). 사진을 활용한 유아교육연구방법 모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89-113.
- _____ (2009). 유아가 찍은 사진에 귀 기울이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17-237.
- 최연철, 신설아(2013). 사진면접을 통해 유아의 일상에 다가가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29-152.
- 최연철, 신설아, 정아림(2010). 사진을 통한 면접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일상성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2), 77-1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3).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CD3, 사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봉희(1996). 사진 자료를 이용한 사고력 신장 방안. *사회과교육*, (29), 145-160.
- 한정식(1986). 사진예술개론. 서울: 열화당.
- _____ (1998). 사진예술개론. 서울: 눈빛.
- _____ (2003). 사진과 현실: 사진의 정체성을 찾아서. 서울: 눈빛.
- 한지연(2011). 북아트를 활용한 책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연주(2002). 미술과 교육에서 사진영상을 통한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4, 147-188.
- 허경아, 정정희(2012).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및 관련 변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479-494.
- Bogdan, R .C.,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M: Pearson A & B.
- DeMarie, D., & Ethridge, E. A. (2006). Children's image of preschool: The power of photography. *Young Children*, 61(1), 101-104.
- Elkind, D. (1989).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 Philosoph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Phi Delta Kappan*, 70, 113-117.
- Graue, M. E., & Walsh, J. J. (1998).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The teacher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photography and its utilization in kindergarten

Hyo-Bin,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tudy analyzed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photography and its utilization in children's education based on detailed cases and identified thei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he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on effective photography and utilization for teachers.

Accordingly, the research problem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What are teacher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photography and its utilization in children's education?
2. What difficulties do teachers have when shooting and utilizing photos

in kindergartens?

For data collect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homeroom teachers of children age 3-5 in Seoul, Daejeon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from Jul. 1 to Aug. 18 2015.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eacher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photography and its utilization in kindergartens, 2-3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ach teacher an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 expert on children's education with quality research experience and a fellow researcher participated to provide advice and verification for more reliable study.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had shared how children were doing in kindergartens with their parents using photos and considered it was useful in delivering information on the kids to their parents. The teachers said that they were using photos in various purposes including organizing educational environment, making education materials or tools, teaching basic life habits and evaluating children. For teachers, photographs are convenient media for collecting and recording data and enhancing accuracy in recording incidents. The teachers also considered that photos have positive effects in studying and improving classes.

Second, the teachers had difficulties in shooting and utilizing

photographs; they had to manipulate situations and scenes intentionally for photos that parents want by being distracted from teaching and focusing more on photo-shooting. Also, categorizing too many photos became a burden. Taking photos and conducting class activities at the same time created labor shortage, which made teachers hard to focus on classes as well. Sometimes all photos stored on cameras disappeared due to breakdown of the device. Although taking photos is an ordinary task in kindergartens, teachers had difficulties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 for cameras from children's education institutes.

The study aims to develop effective methods to shoot and utilize photos in kindergartens by identifying various situations and difficulties for teachers in the course of taking and using photos in kindergartens. It also implicates that ideal photography and its utilization shall be emphasized for all people related to children's education including teachers and children.